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Sexual Meanings and Motives for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전공
조교수 유계숙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oo, Gyesook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sexual meanings and motives for intercourse. The sample consisted of 185 never married students of two universities in Seoul; 58 male and 127 female. Among these students, 55.2% of male students and 22.8% of femal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referred symbolic meanings of sex to these subjects were important, secretive, hot, connected, tense, young, serious, excitable, friendly, wet, sacred, pleasurable, interesting, play, creative, strong, and spontaneous. Students responded that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sex was affection, followed by concern for partner, spiritual bond, communication, recreation-play, and procreation.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and 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more positive sexual meanings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주제어(Key Words): 성의 의미(Sexual Meanings), 성관계의 동기(Motives for Intercourse), 대학생의 성(Sexuality of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Gye-Sook Yoo, Assistant Professor,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02-961-0257
Fax: 02-961-0257 E-mail: dongrazi@khu.ac.kr

* 이 연구는 2004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403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성(性)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성의식을 갖게 되었다. 신세대의 성의식 수준을 체감하게 하는 대표적인 변화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을 단순히 생식이나 자녀출산의 도구에서 벗어나 애정 표현의 방식이자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이러한 경향은 성을 사랑이나 결혼과 분리시켜 생각하도록 하며, 종종 성의 쾌락적 기능에 비중을 둬므로써 성교(sexual intercourse)만을 성이라고 생각하는 등 그릇된 성관련 담론을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고전적 성 관념을 거부하는 청년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의식은 자칫 성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는 간과한 채 단순히 일시적 쾌락의 수단으로 성을 이해하거나 성을 우화화(偶話化)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일시적 분위기에 의하여 생각과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갖고 상담창구를 찾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성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시대착오라고 공박하면서도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의 성 개방 물결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적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차별하는 성의 이중기준과 전통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소유 경향이나 여성을 객체화하고 성 상품화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생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쾌락이나 자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허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과 남녀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한국여성연구회, 1991). 청년들의 왜곡된 성 의식이나 성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 차이와 부조화는 장래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성적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성인기로 진입하는 대학생 시기는 개인이 수용한 이전까지의 성의식과 지식을 진단·보완하는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니는 성의 의미와 동기

를 성찰하는데 초점을 둔 성교육 및 상담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성관계의 동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 인식이 개인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그리고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지니는 성의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청년 대상 성교육에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가 각자 지니고 있는 성 심리의 특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상호 이해하도록 하고, 아울러 평등적이고 수용적인 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예컨대 남녀 학생들이 역할극을 통하여 상대편 성역할(gender role)을 맡았을 때 성(性)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성관계에 임할 것인지 가상체험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남녀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성상담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이성교제나 혼전 성관계상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권력 차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성의 의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개념인 '내면화된 상징적 의미(internalized symbolic meanings)'에 근거한 성 각본 이론(sexual script theory)은 인간의 성행동이 생물학적 본능보다 사회화에 의하여 학습된다는 전제하에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Reiss(1989)에 의하면, 인간의 성행동은

성 각본에 의하여 지배되며, 이러한 성 각본은 개인 내 성각본(intrapsychic sexual scripts), 개인간 성 각본(interpersonal scripts), 그리고 문화적 시나리오(cultural scenarios)로 구분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性)의 의미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며, 개인적(주관적), 관계적(공유된), 문화적(객관적)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Gagnon & Simon, 1973; Gecas & Libby, 1976; Maddock, 1983).

성과 관련된 경험의 정서적 측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성과 관련된 정보,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과 같은 사회적 성(gender)과 성(性)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은 개인의 성의 의미체계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며(Lally & Maddock, 1994), 결과적으로 특정한 성행동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애정과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 지배, 실망, 분노, 거부 의 메시지로 이용할 경우, 두 사람이 공유하는 성의 의미는 통제나 권력의 수단이 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녀 차별적 성 규범을 적용해온 우리 사회는 남성들이 성관계에서 공격적이고 주도적이며 자신의 성적 능력을 입증하도록 기대하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호기심이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암시적이고 반대되는 의미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도록 기대한다(장필화, 1991). 한편 대중매체는 특정 문화에서 수용되는 성의 의미체계를 사회화하는 주 요인이다.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 포르노그래피, 낙태, 성폭력, 미성년에 대한 성적 학대 등 왜곡된 성문화는 사회성원들이 형성하는 성의 의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성관계의 동기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성(性)의 기능이나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는데,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자녀 생산 의향이나 계획 없이 갖는 모든 성관계를 비자연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받아들여 자녀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일처 관계 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생활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러

나 효과적인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고, 남녀차별 등을 타파하는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종족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성(性)의 목적은 친밀감이나 애정, 쾌락의 추구 등 정서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 사회화의 과정에서 학습된 결과로 개인에 따라서 성교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쾌락이나 우정을 위한 성교를 용납하지 못하기도 한다(Traeen & Kvaern, 1996). 인간이 성관계를 갖는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동기는 종족보존(procreation)과 쾌락추구(recreation)의 기능이다. 전자는 자녀 출산을 통한 가계계승의 기능이고, 후자는 성적 쾌락의 추구, 긴장 및 욕구불만의 해소 등을 통하여 생활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능이다(윤가현, 1998). 이 밖에도 성(性)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relational) 기능, 성생활을 통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바로미터(barometer)의 기능, 그리고 두 사람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Talmadge, 1985).

킨제이 등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성행동 및 태도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많은 연구들에서는 성교의 동기를 비롯하여 정서적 관계와 성관계를 분리시키는 경향 등에서는 아직도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큰 편이다(Townsend, 1995). 예컨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랑이나 장래의 약속에 대한 동기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여성들일수록 자신의 파트너와 결혼을 계획한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성들은 사랑이나 약속 등을 성관계의 주요 동기로 여기고 있지만, 쾌락적 욕구 충족 역시 성관계를 갖는 주요 동기라고 응답했다. 여성과 달리 상당수의 남성들은 정서적 관계 유지를 성교의 필수조건을 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15~18세의 영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성교의 전제조건으로 정서적 관계나 약속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사랑의 동기는 남성들에게 구애전략에서 매우 민감한 요소였지만, 여성들에게는 성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

소였다(Taris & Semin, 1997).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관계에서 여성들은 최소한 성관계를 갖기 이전까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들은 성교 후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태도를 바꾸는 경향을 나타냈다(Townsend, 1995).

3. 대학생의 성(性)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성(性)은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청년기는 사회적 독립,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 직업선택, 경제적 자립, 종교 및 정치적 신념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하여 성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에 대해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대학생의 성적 발달은 성인기 성적 성숙의 일차 관문인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확립해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 시기에는 생물학적인 성과 성 반응이 성숙되어 있지만, 성적으로 성숙한 면을 심리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아직 미숙하거나,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과 사회의 성에 대한 개념(sexual concept)이 통제자로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김현숙, 1999).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와 관련하여 김영옥(198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52.2%, 여학생의 6.7%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47.4%, 여학생의 12.3%가,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199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56%, 여학생의 13%가, 성한기(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29.15%, 여학생의 8.8%가, 그리고 김현숙(199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의 37.3%, 여학생의 10.0%가 성교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길한(1997)이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37%가 성경험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2%만이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의 경우 긍정적, 여학생의 경우는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김현숙(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전체의 61.1%(남 56.3%, 여 64.3%)로 이에 찬성하는 경우 8.5%가, 반대하는 학생의 45.5%가 성경험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도 성교할 수 있다는 것에 찬성할수록 남녀 모두 성경험이 많았고(남 47.7%, 여 21.5%),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성교할 수 있다는 문항에 찬성할수록 남녀 모두 성경험이 많았는데, 남학생의 50.0%, 여학생의 15.4%로 남자가 여자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와 남녀간에 성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영남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한 성한기(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 및 '남성이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성의 이중기준에 대해서는 남녀간의 성차가 두드러져 남학생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키스 경험이나 성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에 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권현주, 정혜경, 류은정, 정연강(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방형에 속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수술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고, 성관계는 종족번식의 수단은 아니며, 순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남녀의 성관계를 그 자체로 인정하며, 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받아들이고 있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류진혜와 강재연, 김재환(1995)이 수도권 대학생들의 성의식

실패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성에 대하여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추한 이미지로 보기도 대체로 자연스러운 인간 과정의 하나이며,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순결 중시형의 성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유사점이 많다.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방형과 달리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애정표현의 수단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하고,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며, 연인들의 신체적 접촉을 애정표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성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반면, 출산수단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매춘행위는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지식이나 태도·가치관 등 상대적으로 인지적,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김경신, 1995; 김영옥, 1983; 김현숙, 1999;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성한기, 1996; 안양숙, 정혜정, 이정숙, 1997; 유길한, 1997; 이인숙, 1994), 성에 대한 의미나 느낌, 성관계를 갖는 이유 등과 같이 정서적,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에 대한 의미나 느낌, 동기를 파악하는 연구는 성(性)과 같이 지극히 사적(私的)인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성지식이나 태도 등을 직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나타나는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오차(social desirability error)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Lally & Maddock,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정서적,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의 의미 및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전반적 인식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의 의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남녀공학 대학교 두 곳에 재학 중인 만 18-26세의 대학생 185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교양과목의 수강생 200명에게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지를 실시한 후, 기혼자 2명과 불성실한 응답자 13명을 제외한 185명(남 58명, 여 127명)을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학년이 5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41.6%를 차지하며, 모두가 미혼이었다.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 및 남녀별로 성관계 경험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185명의 대학생 중 61명(33%)이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8명의 남학생 중 32명(55.2%)과 127명의 여학생 중 29명(22.8%)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남학생의 경험율이 여학생의 경험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347.17만원이고,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가장 많고(40.5%), 다음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185)

인구사회학적 특징		빈도(%)
성 별	남	58(31.4)
	여	127(68.6)
만 연령(세)	20세 미만	50(27.0)
	20세	49(26.5)
	21세	32(17.3)
	22세	26(14.1)
	23세	20(10.8)
	24세 이상	8(4.3)
학 년	1학년	108(58.4)
	2학년	32(17.3)
	3학년	27(14.6)
	4학년	18(9.7)
결혼지위	미 혼	185(100.0)
	동 거	0(0)
	기 혼	0(0)
성경험 유무	무 경험	124(67.0)
	유 경험	61(33.0)
가정의 월수입 (만원)	200만원 이하	27(14.6)
	201-300만원	39(21.1)
	301-400만원	21(11.3)
	401-500만원	12(6.5)
	500만원 초과	8(4.3)
	무 응 답	78(42.2)
종 교	기 독 교	62(33.5)
	불 교	21(11.4)
	천 주 교	27(14.6)
	무 교	75(40.5)

2. 측정도구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Maddock (1988)의 Sexual Meaning Survey(SMS)이다. 이 척도는 성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는 50문항의 의미분화 척도(SMS-SD)와 성관계의 동기 정도를 묻는 10개의 문항들(SMS-RS)로 구성되어 있다. 즉 SMS-SD에서는 '약하다-강하다'와 같이 성과 관련하여 양 극단에 반대되는 의미를 두고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SMS-RS에서는 성관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외 각국에서 보고된

SMS-SD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평균 .52이며 (Lally & Maddock, 1994), 본 연구에서 분석한 SMS-RS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의 의미 및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의 의미에 대한 대학생의 전반적 인식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의미로서 '중요하다', '비밀스럽다', '뜨겁다', '연결되다', '긴장 된다', '짧다', '진지하다', '흥분 된다', '우호적이다', '젖어있다', '신성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노는 것이다', '창조적이다', '강하다', '자연발생적이다'의 순으로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탐색적 목적으로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요인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록 참조).

한편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전반적 인식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성관계를 갖는 주요 동기로서 '애정', '상대에 대한 관심', '정신적 결합', '의사소통', '즐거움과 쾌락', '자녀 출산' 등의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대학생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서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의 여러 가지 의미들에서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인식 차이를 발견하였다. 성별의 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성에 대해 '즐겁다', '재미있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순수하

<표 2> 성의 의미에 대한 대학생의 전반적 인식 경향(n=185)

성의 의미 (1점 - 5점)	평 균	표준편차	성의 의미 (1점 - 5점)	평 균	표준편차
일하는 것이다 - 노는 것이다	3.68	.65	무관심하다 - 몰두하다	3.40	.80
약하다 - 강하다	3.64	.71	정돈되어있다 - 어질러져있다	3.04	.77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1.96	1.21	거리감이 있다 - 친근하다	3.22	.99
즐겁다 - 고통스럽다	2.29	.85	지배적이다 - 복종적이다	2.97	.49
주는 것이다 - 받는 것이다	2.89	.48	우습다 - 진지하다	3.81	.83
폐쇄적이다 - 개방적이다	3.07	.98	욕구불만이다 - 만족스럽다	3.36	.72
대담하다 - 부끄럽다	3.11	.90	뜨겁다 - 차갑다	2.02	.76
친절하다 - 잔인하다	2.50	.80	안전하다 - 위험하다	3.38	.82
무능하다 - 유능하다	3.32	.66	단단하다 - 유연하다	3.40	.73
다르다 - 같다	2.93	1.04	신성하다 - 불경스럽다	2.27	.79
연결되다 - 분리되다	2.06	.82	가볍다 - 무겁다	3.39	.73
조용하다 - 시끄럽다	2.97	.85	의심스럽다 - 확실하다	3.07	.84
적대적이다 - 우호적이다	3.75	.78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2.83	.87
깨끗하다 - 더럽다	2.66	.80	빠르다 - 느리다	2.76	.68
긴장 된다 - 느슨해진다	2.07	.75	순수하다 - 불순하다	2.65	.82
남성적이다 - 여성적이다	2.84	.58	자발적이다 - 내키지 않는다	2.58	.90
지루하다 - 재미있다	3.71	.64	거칠다 - 부드럽다	3.40	.86
젖어있다 - 건조하다	2.26	.68	홍분 된다 - 차분하다	2.22	.79
성공적이다 - 실패적이다	2.57	.67	짧다 - 노숙하다	2.09	.79
길들여져 있다 - 제멋대로이다	2.88	.72	비밀스럽다 - 공개적이다	2.02	.71
자연발생적이다 - 계획적이다	2.38	.94	체력 소모적이다 - 정력적이다	2.91	.90
파괴적이다 - 창조적이다	3.67	.83	타이밍이 좋다 - 타이밍이 나쁘다	2.67	.67
자신 있다 - 두렵다	3.09	.90	불평등하다 - 평등하다	3.13	1.02
불임(不妊) - 다산(多産)	3.35	.78	일상적이다 - 이례적이다	3.03	.90
능동적이다 - 수동적이다	2.51	.89	드물다 - 빈번하다	2.75	.95

<표 3>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전반적 인식 경향(n=185)

성관계의 동기	평균(표준편차)	순위
성 취 감	3.07(.92)	9
애 정	4.69(.57)	1
상호 교환 및 거래	3.17(1.29)	8
의사소통	3.97(.89)	4
상대방에 대한 관심	4.37(.67)	2
의 무 감	2.90(1.11)	10
자녀 출산	3.64(1.14)	6
즐거움과 쾌락	3.95(.72)	5
정신적 결합	4.26(.78)	3
긴장 이완	3.18(.85)	7

다', '친근하다', '평등하다', '유능하다', '성공적이다', '자신 있다', '다산(多産)', '타이밍이 좋다', '능동적이다', '몰두하다', '남성적이다', '지배적이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관계 경험 유무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서 성에 대해 '즐겁다', '재미있다', '일상적이다', '성공적이다', '자신 있다', '몰두하다', '진지하다', '신성하다', '부드럽다', '연결되다', '홍분된다', '빠르다', '짧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위와 같이 성의 의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서

〈표 4〉 대학생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n=185)

성의 의미 (1점 - 5점)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 평균								변량원의 F값		
	남자 무경험	남자 유경험	남자 전체	여자 무경험	여자 유경험	여자 전체	무경험 전체	유경험 전체	성 별	성경험 유무	성별× 성경험 유무
일하는 것이다 - 노는 것이다	3.63	3.80	3.72	3.69	3.64	3.68	3.69	3.67	.082	.136	.454
약하다 - 강하다	3.75	4.10	3.94	3.57	3.75	3.61	3.58	3.83	2.185	2.185	.214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2.00	1.90	1.94	1.99	1.81	1.95	1.99	1.83	.027	.216	.020
즐겁다 - 고통스럽다	2.00	1.30	1.61	2.41	2.22	2.37	2.39	2.02	10.117**	4.491*	1.500
주는 것이다 - 받는 것이다	3.00	3.00	3.00	2.88	2.89	2.88	2.88	2.91	.914	.003	.003
폐쇄적이다 - 개방적이다	3.13	3.80	3.50	3.00	3.14	3.03	3.01	3.28	2.546	2.729	1.184
대담하다 - 부끄럽다	3.13	2.40	2.72	3.17	3.11	3.16	3.17	2.96	2.749	2.955	2.127
친절하다 - 잔인하다	2.13	1.80	1.94	2.58	2.53	2.57	2.55	2.37	8.930**	.902	.483
무능하다 - 유능하다	3.50	3.90	3.72	3.26	3.33	3.27	3.27	3.46	5.928*	2.049	.954
다르다 - 같다	3.38	3.30	3.33	2.88	2.92	2.89	2.91	3.00	2.699	.006	.042
연결되다 - 분리되다	2.25	1.50	1.83	2.14	1.92	2.09	2.15	1.83	.554	5.594*	1.642
조용하다 - 시끄럽다	3.63b	2.90a	3.22	2.91a	3.11ab	2.95	2.95	3.07	1.388	1.465	4.662*
적대적이다 - 우호적이다	3.75	4.10	3.94	3.70	3.78	3.72	3.71	3.85	.867	1.148	.482
깨끗하다 - 더럽다	2.25	2.30	2.28	2.73	2.58	2.70	2.70	2.52	3.529	.053	.228
긴장 된다 - 느슨해진다	1.87	1.89	1.88	2.07	2.08	2.07	2.06	2.04	1.004	.005	.000
남성적이다 - 여성적이다	2.50	2.50	2.50	2.85	2.94	2.87	2.83	2.85	7.390**	.101	.101
지루하다 - 재미있다	3.75	4.40	4.11	3.61	3.86	3.67	3.62	3.98	4.526*	7.999**	1.615
젖어있다 - 건조하다	2.25	2.00	2.11	2.36	1.97	2.28	2.36	1.98	.066	3.616	.177
성공적이다 - 실패적이다	2.25	1.60	1.89	2.68	2.53	2.65	2.65	2.33	18.311***	6.390*	2.465
길들여져 있다 - 제멋대로이다	3.13	2.90	3.00	2.91	2.72	2.87	2.93	2.76	1.131	1.292	.009
자연발생적이다 - 계획적이다	3.00b	1.90a	2.39	2.41ab	2.33ab	2.39	2.44	2.24	.116	6.191*	4.748*
파괴적이다 - 창조적이다	3.25a	4.30b	3.83	3.66a	3.61a	3.65	3.64	3.76	.435	5.720*	7.000**
자신 있다 - 두렵다	3.13	2.00	2.50	3.25	2.83	3.16	3.24	2.65	4.837*	12.536**	2.668
불임(不妊) - 다산(多産)	3.75	3.60	3.67	3.36	3.17	3.32	3.38	3.26	4.410*	.745	.010
능동적이다 - 수동적이다	2.00	1.50	1.72	2.65	2.39	2.59	2.61	2.20	12.501**	3.063	.298
무관심하다 - 몰두하다	3.38	4.40	3.94	3.24	3.67	3.33	3.25	3.83	5.186*	14.498***	2.467
정돈되어있다 - 어질러져있다	2.50	2.90	2.72	3.10	3.03	3.08	3.07	3.00	3.521	.709	1.484
거리감이 있다 - 친근하다	3.75	4.10	3.94	3.02	3.50	3.13	3.07	3.63	7.638**	2.966	.070
지배적이다 - 복종적이다	2.75	2.60	2.67	3.02	2.92	3.00	3.01	2.85	5.721*	1.083	.031
우습다 - 진지하다	3.50	4.40	4.00	3.73	4.03	3.79	3.71	4.11	.122	8.296**	2.061
욕구불만이다 - 만족스럽다	2.88a	3.90b	3.44	3.28ab	3.58b	3.35	3.26	3.65	.061	14.038***	4.127*
뜨겁다 - 차갑다	2.62b	1.40a	1.94	2.09ab	1.81a	2.03	2.12	1.72	.114	16.500***	6.324*
안전하다 - 위험하다	3.25b	2.40a	2.78	3.43b	3.47b	3.44	3.42	3.24	9.711**	4.040*	4.936*
단단하다 - 유연하다	3.38	3.20	3.28	3.38	3.50	3.41	3.38	3.43	.669	.024	.603
신성하다 - 불경스럽다	2.25	1.60	1.89	2.36	2.11	2.31	2.36	2.00	2.504	5.222*	1.008
가볍다 - 무겁다	3.50	3.50	3.50	3.40	3.33	3.39	3.41	3.37	.500	.035	.035
의심스럽다 - 확실하다	3.13	3.70	3.44	2.99	3.08	3.01	3.00	3.22	3.197	2.525	1.333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2.38	2.20	2.28	2.93	2.78	2.90	2.90	2.65	6.887**	.575	.003
빠르다 - 느리다	2.75	2.30	2.50	2.86	2.50	2.78	2.85	2.46	.848	5.779*	.071

〈표 4〉 계속

성의 의미 (1점 - 5점)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 평균								변량원의 F값		
	남자 무경험	남자 유경험	남자 전체	여자 무경험	여자 유경험	여자 전체	무경험 전체	유경험 전체	성 별	성경험 유무	성별× 성경험 유무
순수하다 - 불순하다	2.50	2.00	2.22	2.71	2.67	2.70	2.69	2.52	4.398*	1.679	1.230
자발적이다 - 내키지 않는다	2.75b	1.50a	2.06	2.70b	2.44b	2.64	2.70	2.24	4.078*	11.578**	5.091*
거칠다 - 부드럽다	3.25	4.00	3.67	3.37	3.33	3.36	3.36	3.48	1.572	2.681	3.297
홍분 된다 - 차분하다	2.38	1.50	1.89	2.34	2.00	2.27	2.34	1.89	1.444	9.830**	1.895
짧다 - 노숙하다	2.13	1.60	1.83	2.19	1.89	2.13	2.19	1.83	.822	4.423*	.311
비밀스럽다 - 공개적이다	2.13	2.30	2.22	2.02	1.92	2.00	2.03	2.00	1.783	.035	.601
체력 소모적이다 - 정력적이다	3.13b	3.50b	3.33	2.99ab	2.44a	2.87	3.00	2.67	7.173**	.152	4.326*
타이밍이 좋다 - 타이밍이 나쁘다	2.50	2.00	2.24	2.75	2.58	2.72	2.74	2.47	5.952*	3.814	.937
불평등하다 - 평등하다	3.50	4.10	3.83	3.06	2.97	3.04	3.09	3.22	9.390**	.997	1.823
일상적이다 - 이례적이다	3.13	2.20	2.61	3.10	2.97	3.07	3.10	2.80	2.763	5.481*	3.132
드물다 - 빈번하다	2.50	3.20	2.89	2.69	2.89	2.73	2.68	2.96	.062	3.412	1.060

* p < .05 ** p < .01 *** p < .001 주) a, b, ab : Duncan 검증 결과, 유의한 (p < .05) 차이를 보이는 집단임.

나타난 성별 및 성관계 경험 유무의 주 효과 외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서 성에 대해 '뜨겁다', '자연발생적이다', '만족스럽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특히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이나 성관계 경험이 없는 남학생들에 비해서 성에 대해 '창조적이다', '안전하다', '자발적이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남학생들은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에 비해서 성에 대해 '시끄럽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은 남학생이나 경험이 없는 여학생들에 비하여 성을 '체력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다 강했다.

3.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대학생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서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적 결합',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의 동기에서는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이러한 세 가지 동기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문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탐색적 목적으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학년과 종교에 따라서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각각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학년이나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대학생들이 성의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과 성관계의 제 동기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군을 예언변인군(독립변인군), 그리고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군을 기준변인군

〈표 5〉 대학생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n=185)

성관계의 동기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평균								변량원의 F값		
	남자 무경험	남자 유경험	남자 전체	여자 무경험	여자 유경험	여자 전체	무경험 전체	유경험 전체	성 별	성경험 유무	성별× 성경험유무
성취감	3.13	3.50	3.33	3.08	2.92	3.04	3.08	3.04	1.801	.210	1.320
애정	4.63	4.80	4.72	4.67	4.76	4.69	4.66	4.77	.000	.821	.084
상호교환 및 거래	2.88	2.60	2.72	3.25	3.16	3.23	3.23	3.04	2.078	.316	.079
의사소통	3.75	4.30	4.06	3.89	4.24	3.97	3.88	4.26	.033	4.010*	.188
상대방에 대한 관심	4.38	4.80	4.61	4.27	4.59	4.34	4.28	4.64	.850	4.956*	.089
의무감	2.38	2.90	2.67	2.94	2.89	2.93	2.90	2.89	.949	.715	1.005
자녀출산	3.75	3.60	3.67	3.73	3.30	3.63	3.73	3.36	.305	1.017	.241
즐거움과 쾌락	4.13	4.20	4.17	3.85	4.16	3.92	3.87	4.17	.747	1.143	.430
정신적 결합	3.75	4.50	4.17	4.18	4.57	4.27	4.16	4.55	1.639	8.444**	.873
긴장이완	3.13	3.20	3.17	3.10	3.43	3.17	3.10	3.38	.221	.915	.370

* p < .05 ** p < .01

(중속변인군)으로 선정된 후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변인군 간의 관계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변인군 간의 상관을 극대화시키는 가중치를 갖는 정준함수를 도출하고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출된 10개의 정준함수 중 3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군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군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군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군의 선형조합 간 공유변량은 도출된 정준함수별로 각각 59%(제1 정준함수), 53%(제2 정준함수), 49%(제3 정준함수)로 나타났다.

한편 도출된 정준함수에 대한 변인들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s)와 정준적재치(canonical loadings) 및 정준교차적재치

(canonical cross loadings)를 산출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준적재치 및 교차적재치가 .30 이상인 변인들에 근거하여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의 의미에 대해서 '지루하다', '욕구불만이다', '약하다', '적대적이다', '더럽다', '잔인하다', '진조하다', '수동적이다', '차갑다', '내키지 않는다', '우습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은 '즐거움과 쾌락', '애정', '정신적 결합'과 같은 성관계의 동기 수준은 낮은 반면, '자녀출산'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두 곳의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성관계의 동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들이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표 6〉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간의 정준상관분석(n=185)

정준함수	정준상관계수 (Canonical R)	정준근(R ²)	χ^2
제1 정준함수	.77	.59	669.38***
제2 정준함수	.73	.53	539.41**
제3 정준함수	.70	.49	432.55*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 간의 정준상관분석(n=185)

변인군		제1 정준함수			제2 정준함수			제3 정준함수			
		정준 가중치	정준 적재치	정준 교차 적재치	정준 가중치	정준 적재치	정준 교차 적재치	정준 가중치	정준 적재치	정준 교차 적재치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군	일하는 것이다 - 노는 것이다	-.20	-.37		-.12			-.12			
	약하다 - 강하다	-.31	-.49	-.38	-.01			.21			
	즐겁다 - 고통스럽다	.13	.34		.38			.41			
	주는 것이다 - 받는 것이다	.17			-.06			-.31	-.35		
	폐쇄적이다 - 개방적이다	-.01			.42	.32		-.18			
	친절하다 - 잔인하다	.14	.44	.34	-.24			-.27			
	무능하다 - 유능하다	.02			-.29			-.16	-.34		
	연결되다 - 분리되다	-.10	.37		-.42	-.33		.21			
	적대적이다 - 우호적이다	-.19	-.49	-.38	-.16			-.25			
	깨끗하다 - 더럽다	.22	.47	.36	-.05			.15			
	지루하다 - 재미있다	-.07	-.52	-.40	-.08			.42			
	젖어있다 - 건조하다	.19	.42	.33	.19			.08			
	성공적이다 - 실패적이다	-.46	.35		.13			.21			
	길들여져 있다 - 제멋대로이다	.27	.33		.19			-.00			
	자신 있다 - 두렵다	.10	.31		-.15	.32		.25			
	능동적이다 - 수동적이다	.24	.42	.32	-.04			-.13			
	무관심하다 - 몰두하다	.12	-.39		.12			.03			
	거리감이 있다 - 친근하다	-.06	-.38		.00			-.00			
	기준변인군	우습다 - 진지하다	-.06	-.39	-.30	-.24			.14		
		욕구불만이다 - 만족스럽다	-.29	-.52	-.40	.06			-.28		
뜨겁다 - 차갑다		-.07	.42	.32	-.29			-.41			
단단하다 - 유연하다		-.01			.25	.36		.00			
의심스럽다 - 확실하다		-.08			.20	.41		.26			
빠르다 - 느리다		.11	.32		.16			-.14			
자발적이다 - 내키지 않는다		.17	.42	.32	.02			.37			
거칠다 - 부드럽다		.16	-.36		.24						
흥분 된다 - 차분하다		-.08	.37		.11			-.03			
젊다 - 노숙하다		.03	.37		.09			-.02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군	비밀스럽다 - 공개적이다	.13			-.29			-.17	-.36		
	불평등하다 - 평등하다	-.42	-.32		.09	.30		-.22			
	성취감	-.04			-.09			-.83	-.63	-.44	
	애정	-.39	-.58	-.45	.73	.34		.10			
	상호교환 및 거래	.07			.10	.40		-.07			
	의사소통	-.14			-.13			.25	.34		
	상대방에 대한 관심	.20	-.34		-.43			-.07			
	의무감	.39	.38		.30	.39		.48	.34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인식군	자녀출산	.49	.44	.34	-.16			.18			
	즐거움과 쾌락	-.52	-.65	-.51	-.43			.08			
	정신적 결합	-.17	-.57	-.44	-.13			.39	.40		
	긴장이완	-.03			.86	.69	.50	-.28			

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3분의 1가량이 성관계 경험을 가졌으며, 남학생의 55.2%, 여학생의 22.8%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선행연구들(김영옥, 1983; 김현숙, 1999;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성한기, 1996; 유길한, 1997; 이인숙, 1994)에서 보고된 남학생의 성경험 비율 29.15-56%와 유사하나, 여학생의 성경험 비율 2-13%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이다. 즉 여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사회학자가 92년과 99년 각각 재학생들의 성경험 비율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여학생의 성경험율이 7년간 0.4%에서 15.1%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보도(동아일보, 1999. 11. 15일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대학생들은 성(性)에 대하여 '중요하다', '비밀스럽다', '뜨겁다', '연결되다', '긴장 된다', '젊다', '진지하다', '흥분 된다', '우호적이다', '젖어있다', '신성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노는 것이다', '창조적이다', '강하다', '자연발생적이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적·본능적·감성적·쾌락적 성(性)의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관계를 갖는 주요 동기로서 '애정', '상대에 대한 관심', '정신적 결합', '의사소통', '즐거움과 쾌락', '자녀 출산' 등의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쾌락추구나 종족보존보다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성(性)의 관계적·정서적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성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정신적 결합',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의 동기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파트너와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성(性)의 상징적 기능(Talmdage, 1985)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성별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서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서 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의미들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성(gender) 체계,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경험과 정서적 상호작용 등이 개인이 지니는 성의 의미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Lally & Maddock(199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서 성에 대해 '즐겁다', '재미있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순수하다', '친근하다', '평등하다', '유능하다', '성공적이다', '자신 있다', '다산(多産)', '타이밍이 좋다', '능동적이다', '몰두하다', '남성적이다', '지배적이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처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의미들을 부여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중심적인 전통적 성역할과 가부장적 성규범이 성(性)의 의미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식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남성에 대한 성(性)의 사회화는 개방적으로 강화되고 과장된 반면, 여성에 대한 성(性)의 사회화는 위축되고 낭만화된 것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이 어릴 때부터 남아와 여아의 성에 대한 비대칭적 평가가 나타난다.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에서 남아의 성은 자유롭고 개방되어있으나, 여아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순결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성장한다. 더구나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성교육도 순결교육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성문화연구소, 1997). 이처럼 남녀 차별적인 성(性)의 사회화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에게는 보다 긍정적 의미에 기반한 성의식을 갖도록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미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는 남학생들은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에 비해서 성에 대해 '시끄럽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은

남학생이나 경험이 없는 여학생들에 비하여 성을 '체력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다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왜곡된 성문화가 대학생들로 하여금 성에 대하여 행위 중심적 측면에 치우친 의미를 부여하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성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은 '즐거움과 쾌락', '애정', '정신적 결합'과 같은 성관계의 동기 수준은 낮은 반면, '자녀출산'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자녀출산 의향이나 계획 없이 갖는 모든 성관계를 비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가르쳐온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자녀생산의 목적을 위한 일부일처의 관계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성생활을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해온 기독교 문화적 성개념은 효과적인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고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단순한 종족보존 이외의 친교나 온정, 순수한 쾌락과 같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비중을 두게 되었고, 심지어는 개인적 자유와 행복 추구 등의 측면들이 강조되면서 성적 존재(sexual being)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따라서 성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종족번식, 위생, 도덕성에 초점을 둔 성교육을 지양하고, 정치, 경제, 윤리, 문화, 사회, 환경 등의 영역 전반에서 개인의 성적 존재를 이해시키는 사회과학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윤가현, 1998).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 두 곳의 대학 재학생들로 한정되었고, 남녀 비율과 학년 분포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인지적,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가 정서적,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혼 대학생 이외의 보다 다양

한 연구대상을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성지식이나 실제 성행동 및 성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성(性)의 다양한 측면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커플이나 부부관계에서의 성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성의 의미와 성관계의 동기를 비교하고, 그것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현주, 정혜경, 류은정, 정영강(1998).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2), 229-241.
- 김경신(1995).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81-201.
- 김영옥(1983).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대학생과 근로청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9).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2), 339-356.
- 동아일보(1999, 11, 15). 여대생 성경험 눈에 띄게 늘어.
- 류진혜, 강재연, 김재환(1995). 대학생의 성에 대한 실태 조사.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3, 17-55.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 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성문화연구소(1997). 성과 인간: 대학교 성교육 교재. 성문화연구소.
- 성한기(1996).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 207-229.
- 안양숙, 정혜정, 이정숙(1997).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 15, 137-154.
- 유길한(1997).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 23(1), 91-122.
- 윤가현(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인숙(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필화(1991).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또 하나의 문화, 8,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한국여성연구회(1991). 여성학 강의. 서울 : 도서출판 동녘.
- Gagnon, J. & Simon, W. (1973). *Sexual conduct*. Chicago: Aldine.
- Gecas, V. & Libby, R. (1976). Sexual behavior as symbolic interact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2, 33-29.
- Lally, C. F. & Maddock, J. W. (1994). Sexual meaning systems of engaged couples. *Family Relations*, 43, 53-60.
- Maddock, J. (1983). Human sexuality in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system. In J. Hansen, J. Woody, & R. Woody(Eds.), *Sexual issues in family therapy*(pp. 3-31). Rockville, MA: Aspen Systems Co.
- Maddock, J. (1988). The sexual meaning scales: Development of a semantic differential. Paper presented at the 1988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iladelphia, PA.
- Reiss, I. (1989). *Journey into sexual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Talmadge, W. C. (1985). Marital sexuality. In L. L'Abate(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Vol. 1).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Taris, T. & Semin, G. (1997). Gender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the love motive and relational context on sexual experie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 159-180.
- Townsend, J. (1995). Sex without emotional involvement: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sex differenc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4, 173-206.
- Traeen, B. & Kvale, I. (1996). Sexual socialization and motives for intercourse among Norwegian adolesc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 289-302.

(2004년 10월 25일 접수, 2005년 2월 22일 채택)

<부록> 회전(OBLIMIN rotation) 후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n=185)

성의 의미(1-5점)	요인 부하값				성의 의미(1-5점)	요인 부하값			
	1	2	3	4					
일하는-노는					무관심-몰두	.433	.382	.441	.253
약하다-강하다	-.074	-.249	-.068	-.090	정돈된-어질러진	-.259	-.669	-.340	-.205
중요-비중요	-.014	-.485	.011	-.025	거리감-친근한	.360	-.078	-.007	.428
즐겁다-고통	-.026	.192	.056	.146	지배적-복종적	-.374	-.371	-.511	-.275
주는것-받는것	.180	.333	.277	.340	우습다-진지한	-.002	-.062	.207	-.122
폐쇄적-개방적	-.065	.000	-.016	-.189	욕구불만-만족한	-.073	-.536	.009	-.571
대담-부끄럽다	-.359	-.122	-.311	-.284	뜨겁다-차갑다	-.216	-.454	-.396	-.279
친절-잔인	.346	.211	.404	.215	안전한-위험한	.056	.768	.129	.236
무능-유능	.522	.239	.238	.530	단단한-유연한	.524	-.129	.282	.260
다르다-같다	-.320	-.341	-.239	-.195	신성한-불경스런	-.224	-.125	-.061	-.189
연결-분리	-.215	.001	.031	-.158	가볍다-무겁다	.316	.285	.176	.749
조용한-시끄러운	.249	.517	.202	.508	의심스런-확실한	.021	-.265	.204	-.230
적대적-우호적	.077	-.047	-.095	.272	너그럽다-이기적	-.667	-.077	-.175	-.322
깨끗한-더러운	-.423	-.384	-.218	-.392	빠르다-느리다	.436	.071	.060	.399
긴장된-느슨한	.400	.280	.174	.595	순수한-불순한	-.013	.389	.173	-.004
남성적-여성적	-.169	.401	-.117	.056	자발적-내키지않음	.501	.104	.222	.626
지루한-재미있는	-.220	.207	-.084	.079	거칠다-부드럽다	.520	.376	.474	.332
젖은-건조한	-.289	-.484	-.268	-.245	홍분된-차분한	-.529	-.316	-.221	-.518
성공적-실패적	.147	.657	.154	.151	짧다-노숙하다	.118	.693	.249	.180
길들여진-제멋대로	.574	.598	.352	.223	비밀스런-공개적인	.123	.496	.127	.196
자연발생적-계획적	.046	.231	.054	.412	체력소모적-정력적	-.377	.457	-.223	.049
파괴적-창조적	.016	.267	-.054	.146	군타이밍-"b타이밍	-.355	-.089	-.057	-.168
자신있다-두렵다	-.312	-.234	-.027	-.569	불평등한-평등한	.456	.301	.385	.088
불임-다산	.600	.262	.507	.092	일상적-이례적	-.801	-.003	-.167	-.253
능동적-수동적	-.028	-.150	-.157	-.070	드물다-빈번하다	.187	.045	.861	.062